전남대 의예과 521점 조선대 치의예과 513점

6월모평 점수로 지원 가능 대학

전남대에 진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문계열 수험생은 475점 이상, 자연계열은 458점 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상위권인 서울대 의예과는 535점, 경영대학은 534점은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의예과는 521점, 조선대 의예과는 518점이 커트라인이다.

이는 광주시진학부장협의회(회장 문형수·고려고 진학부장)가 지난달 12일 시행한 201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국어·수학·영어·탐구 표준점수 800점 기준) 광주지역 고등학생 1만6000여명의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산출한 배치자료에 따른 것이다.〈표 참조〉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100점)은 국어 A형 128점·B형 133점, 수학 A형 136점·B형 132점, 영어 126점, 탐구 66~78점(사회문화 66점, 한국지리 69점, 생활과윤리 74점, 생명과학Ⅰ 72점, 화학Ⅰ 73점, 생명과학Ⅱ 67점)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 수험생은 영어교육과 506점, 국어교육과 504점, 행정학과 502점(이상 나군), 경영학부 501점(가군)이고, 자연계열 수험생은 의예과 521점, 치의학과 515점(이상 가군), 수의예과 500점, 수학교육과 497점, 간호학과 488점(이상 나군)은 돼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환해 올해 첫 모집하는 조선대 의예과는 518점, 치의예과는 513점으로 예상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지원하려면 513점은 돼야 하고, 광주교육대는 백분위 평균 90.2점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서울 주요대학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배치표**〈표준점수 800점 기준〉

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점수	모집단위	점수
서울대	경영대학	534	의예과	535
	국어교육과	527	생명과학부	522
	농경제사회학부	528	화학생물공학부	522
	사회과학계열	532	수리과학부	520
	영어교육과	530	전기정보공학부	519
	인문계열	530	조선해양공학과	516
연세대	경영학과	529	의예과	532
	교육학부	525	치의예과	528
	실내건축학과	521	생화학과	516
	심리학과	525	전기전자공학부	515
	언론홍보영상학부	527	건축공학과	513
	행정학과	527	천문우주학과	510
고려대	경영대학	529	의과대학	528
	국제학부	525	화공생명공학과	515
	미디어학부	526	사이버국방학과	516
	자유전공학부	526	생명과학부	514
	정경대학	528	기계공학부	512
	한국사학과	522	수학교육과	514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524	의예과	528
	한문교육과	517	소프트웨어학과	514
	영상학과	518	반도체시스템공학과	514
서강대	Art&Technology계	525	자연과학부	509
	영미문화계	521	전자공학계	508
	커뮤니케이션학부	523	화공생명공학계	510

■ **광주·전남 주요대학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배치표**

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군)	점수	모집단위(군)	점수
전남대	경영학부(가)	501	의예과(가)	521
	국어교육과(나)	504	치의학과(가)	515
	영어영문학과(가)	499	수의예과(나)	500
	행정학과(나)	502	간호학과(나)	488
	신문방송학과(나)	494	기계공학부(가)	483
	심리학과(나)	496	생물교육과(나)	488
	정치외교학과(나)	490	수학교육과(나)	497
	자율전공학부(4년)(나)	481	전기공학과(가)	485
조선대			의예과	518
			치의예과	513
광주교대	백분위 평균 90.2점			
광주과기원				513

도심 원추리 꽃

장맛비가 내린 6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대로변에 원추리 꽃이 만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24 해짐 19:50 달뜸 14:21 달짐 00:48

태풍 대비하세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림	21/28	보 성	흐림	19/26
목 포	흐림	20/25	순 천	흐림	21/26
여 수	흐림	20/25	영 광	흐림	21/27
나 주	흐림	20/28	진 도	흐림	21/26
완 도	흐림	20/26	전 주	흐림	21/29
구 례	흐림	20/27	군 산	흐림	20/27
강 진	흐림	21/26	남 원	흐림	19/28
해 남	흐림	21/27	흑산도	흐림	20/24
장 성	흐림	20/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0.5~1.5
	먼바다	남~남서	1.5~2.5	동~남동	1.5~3.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8:34	01:42
	21:31	14:18
여수	09:54	03:37
	22:56	16:54

◇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10
빨래	20

◇ **주간 날씨**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22/31	24/28	24/29	23/29	23/27	23/28	23/29

태풍 '너구리' 북상… 오늘 낮 광주·전남 영향권

중심 부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7m를 기록중인 태풍 '너구리(NEOGURI)'가 7일부터 광주·전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소식은 없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5~28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을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낮부터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남해바다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일부 지역의 경우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6일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 8호 태풍 너구리는 6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6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6㎞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40헥토파스칼(hPa·기압의 단위)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7m(시속 169㎞)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이름을 붙인 태풍 너구리는 앞으로 북서진해 7일 낮 오후 3시께 오키나와 남쪽 약 470㎞ 부근 행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기와 강도는 현재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강도나 이동경로가 현재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애타는 세월호, 태풍에 수색 중단

무더위·장마철 실종자 가족·잠수사 건강 대책 마련 절실

세월호 참사 82일째인 6일 기상 악화로 실종자 수색이 전면 중단됐다.

제8호 태풍 '너구리'리 북상에 대비, 바지선과 함정이 모두 피항해 실종자 수색 중단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전날 밤 사고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지원하는 바지선과 소형·중형 함정을 모두 목포 내항으로 이동시켰다.

잠수 작업을 지원한 바지선 2척도 이날 새벽 영암 대불항으로 피항했다.

대책본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기상이 크게 악화돼 수색을 중단하고 피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000t 이상의 대형 함정 5척은 사고해역에 남아 해상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항공 수색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1m 안팎의 파도가 일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기상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최소 5일 가량 수색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이 수습된 뒤 수색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종자 수는 11명에서 멈춰 있다.

대책본부는 또 전자코 시스템 및 수중재호흡기 등 태풍 이후 기존 수색 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중재호흡기의 경우 잠수사가 내쉰 공기를 배출하지 않고 정화시켜 재활용하는 장비로, 잠수 시간을 현재 10~15분에서 최장 6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자코' 시스템을 활용해 실종자 잔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집중 수색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전자코시스템은 희생자가 수습된 격실과 그렇지 않은 격실의 바닷물 냄새의 화학적 성분과 종류가 다를 것이라는데 착안했다. 이 기법은 기존에 상수원의 이물질 검사하거나 채내 암 세포가 번진 부위를 찾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냄새를 시각적 도표로 나타낼 때 일부 적용되는 방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